

토론 대회 경험과 토론 효능감에 대한 연구

-고등학교 토론 대회 소감문 분석을 중심으로-

이선영*

<차 례>

- I. 서론
- II. 연구사
- III. 연구 방법
- IV. 결과 분석 및 논의
- V. 결론

I. 서론

2006년 통합 논술의 바람이 교육계를 휩쓸었다면 2010년에는 토론 열풍이 불고 있으며 당분간 지속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¹⁾ 실제로 각 교육청 별로 시·도 중학생, 고등학생 토론대회²⁾를 개최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각 학교에서는 토론을 선진적인 교수

* 숭실고등학교 교사

- 1) 통합논술에 대한 관심이 토론 교육으로 이어진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통합 논술 지도시 제시문 분석이 끝나고 바로 논술문을 작성할 수 있는 학생은 많지 않다. 제시문에서 파악할 수 있는 쟁점에 대한 학생들의 분석과 논쟁이 다양한 쓸거리들을 만들 수 있는 논술 전 활동으로 의미있다고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 2) 서울 지역은 제3회 서울 고등학생 토론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경기 지역도 각 시별로 운영되던 토론대회를 통합하여 제3회 중등학교 토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의 시에서 토론대회를 운영 중이다(2010년 기준).

학습 방법으로 도입하여 각 교과에 적용하려는 움직임³⁾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토론 대회가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토론 수업 특히 토론 대회 참여 경험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효능감을 주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회식 토론이란 토론의 유형 중에서 형식화의 정도가 비교적 엄격한 토론으로 주로 토론 대회에서 실시하는 상호질의형 토론, 의회식 토론 등을 의미한다. 이에 진행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자유 토론이나 원탁 토론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토론 대회 참여 경험이 학습자에게 주는 효능감을 분석하는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우선, 토론 대회에 참여한 경험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최근 하나 둘씩 조직되고 있는 토론 대회의 성과를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토론 대회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토론 대회가 발전해 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토론 효능감 분석은 토론 교육의 실제적 의의를 뒷받침해주는 실증적 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효능이 있다면 어떠한 점에서, 혹은 효능이 없거나 부작용이 있다면 어떠한 부분에서 발생하는지를 파악하여 현장 교사들이 토론 수업을 실제적으로 진행하게 될 때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구를 통해 밝혀진 토론 효능감은 토론 교육을 망설이고 있는 교사들에게 토론 교육에 대한 의심을 떨쳐 버리고 토론 교육의 가능성에 대한 열린 시각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토론 효능감 연구는 토론에 직접 참여하는 학습자를 탐구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토론 과정 속에서 학습자가 실제로 무엇을 경험하고, 느끼고 배우고 평가하는지 분석해 봄으로써 학습자 중심의 토론 학습을 개발하고 설계하는 기초 자

3) 2010년 1월 진행된 자율형 공립고 연수에서 교수-학습 방법의 분과로 소개된 대부분의 연수가 토론, 논술 관련 수업이었다.

료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사

국내의 토론 교육 관련 연구는 토론 교육 내용 연구(박종훈, 1996 ; 엄훈, 2002 ; 이선영, 2002 ; 민병곤, 2004 ; 유동엽, 2004)와 토론 교육의 수업 모형 연구(정재찬 외, 1998 ; 임철성, 2001 ; 최복자, 2006)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연구들은 학습자들이 토론 수업을 통해 토론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즉, 토론 교육의 의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가 긍정적으로 공감한 상태에서 토론 교육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들은 연역적으로 토론 교육의 효과에 대해 인정하고 있을 뿐 경험적인 자료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증적인 연구로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수행된 토론 교육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로는 이준웅 외(2007)가 있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된 토론교육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최초의 연구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2006년 서울대학교 ‘말하기’수업을 수강한 학생을 실험집단으로 삼고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통제 집단에 비해 의사소통 능력의 적절성과 통제성, 그리고 토론 효능감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연구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연구의 결과가 실험처치에 의한 것인지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 성, 연령 등과 같은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갖는다.

국외의 토론 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로는 프릴리(1996), 로저(2002), 윌리엄(200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프릴리(1996)는 미국 여러 대학교의 토론 교재로 널리 쓰이고 있으며 이 책에서는 토론의 가치로 다음과 같은 17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효과적인 기회를 제공해 줌, 리더로 성장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채워줌, 논증 훈련

에 도움이 됨, 당면한 사회문제에 강도 높고 치밀한 정보 분석을 할 수 있게 해줌, 비판적 사고의 능숙도를 높여줌, 지식을 통합할 수 있게 해줌, 목적이 있는 연구 조사 능력 개발, 양적 교수 학습이 아닌 질적 접근이 가능함. 학업 성취도를 높여줌, 즉각적이고 신속한 답변 능력, 비판적인 듣기 능력의 개발, 쓰기 능력 발달, 성숙한 판단 능력, 준비하여 자신감 있게 말하기, 다양한 상황에서 전달력 높이기, 사회적 성숙도 발달, 언어 통합적 능력 발달”이 그것이다.

로저(2002)는 지난 100여 년 간의 토론 교육 관련 논문을 검색하면서 682편의 논문 중 25편만이 토론 교육에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논문을 구상했다. 또한 토론을 통해 비판적인 사고가 향상된다고보다는 이미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학생들이 토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일 수도 있다고 보는 비판적 목소리를 의미있게 받아들이면서 ‘비판적 사고와 토론’의 관계가 토론의 결과로서 비판적 사고력의 발달이 아니라 학습자에게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토론 교육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고자 했다. 따라서 인구 통계학적으로 유사한 그룹을 구성하고 이를 4년간의 장기적 관찰을 통해 지켜봄으로써 토론 대회 참여 경험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실증적인 결과를 얻었다.

윌리엄(2001)은 대학 간 토론 대회 참여 경험이 주는 효능감을 분석하기 위해 각 지역의 토론 코치에게 설문지를 돌리고한 코치당 4명의 학생 응답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함) 286개의 설문결과를 세 가지의 토론 대회 형식별⁴⁾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설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척도들에 대하여 토론의 이점과 단점을 나누어 기술하였다.

또한, 연구의 주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토론 효능감에 대하여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반두라(Bandura, 1997)는 효능감을 자신의 수행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는 자기 효능감(self-efficacy)과 자신의 수행 능력이 집단

4) NDT(55명), CEDA(123명), NPDA(12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NDT(National Debate Tournament), CEDA(The Cross 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 NPDA(National Parliamentary Debate Association)를 의미한다.

에 미치게 되는 효과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는 집단 효능감(collective-efficacy)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토론이라는 구체적인 상황 역시 발표나 연설과는 달리 집단 내의 상호 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토론 활동에 대한 자기 효능감과 집단 효능감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이 때의 집단은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는데 하나는 토론 대회에서 같은 입장을 주장하는 구성원들이며 또 다른 하나는 토론에서 설득을 해야 하는 청중을 포함한 사회 집단을 의미한다.

그리고 토론 효능감이라는 용어는 토론 수행 능력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효능감은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으로 특정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토론에 필요한 고등 사고 능력, 자료 분석 능력, 의사소통 능력, 표현 전략 등의 토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자신감이나 자신의 역할에 대한 신념이 없다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토론 효능감은 토론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발휘될 것으로 기대되는 개인의 주관적 신념을 말하며, 특정한 상황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학습을 통해 형성되고 강화된다. 따라서 본고의 논의는 토론 경험을 통하여 토론 능력이 얼마나 신장되었는지를 측정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토론 경험을 통해 토론 효능감이 어떻게 형성되며, 얼마나 유의미하게 효능감이 강화되거나 약화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효능감에 대한 국내 연구(박영민·김승희(2007)); 최숙기(2008); 박영민·최숙기(2009))는 교사의 효능감과 학습자의 효능감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다. 교사 효능감은 세부적으로는 교사의 수업 관리 효능감, 학생 참여 효능감, 교수 전략 효능감 등의 구성 요인으로 밝히고 학습자의 효능감은 기능에 따라 쓰기 효능감과 읽기 효능감으로 나누어 학교 급별, 성별 변인에 따른 발달 연구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말하기와 듣기 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교육 현장에 맞는 말하기·듣기 효능감 검사 도구도 개발되지 못했다.⁵⁾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효능감 검사 도구는 대부분 외국 논문의 검

사 도구를 국내에 맞도록 약간의 조정을 거친 후 사용하는 경향이 많았다. 하지만 약간의 조정을 어떻게 거치는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보다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토론 효능감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질적 자료를 수집하여 유형을 분석하고 상황 맥락 안에서 해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토론 효능감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효능감의 구성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조사뿐 아니라 효능감을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맥락에 대한 설명 역시 제공되는 연구가 필요하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실시되었다.

토론 대회와 토론 효능감의 관련성에 대한 사전 연구(설문조사) 실시 → 토론 효능감의 형성 과정과 유형 파악을 위한 질적 자료(토론 소감문) 수집 및 분석 → 질적 자료(심층인터뷰)의 보강 및 분석 → 결과 논의

1. 사전 연구의 과정 및 결과

대회식 토론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각 학교 급별로 대상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을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⁶⁾ 토론 대회 참여 경험과 토론 효능감의 관련성을 실

5) 토론 효능감을 8가지의 척도로 제시한 연구(이준웅·김은미, 2006)가 있지만, 이 역시 교육적 관점에서 검토와 상세한 기술이 필요하다.

6) 서울시 토론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 중 실제 최종 분석 자료로 쓰인 30명의 설문조사를 분석해 보면 학교에서 토론을 활용한 수업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명에 그쳤다.

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 ‘제1회 서울 고등학생 토론 대회’ 본선에 참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선 참가자들은 각 학교 대표들(학교당 3명)로 구성되었으며 본선 이전에 예선 1차(논술심사), 예선 2차(각 지구 토론대회)에서 우승한 학생들로 모두 본 대회 이전에 교내 혹은 교외에서 토론 대회를 경험한 학생들이다.

제1회 서울 고등학생 토론 대회에는 서울 시내 23개 고등학교에서 총 69명이 참가하였다. 연구자는 본선 1차, 2차, 3차전의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거된 43명⁷⁾의 설문지 중에 응답 표시 오류가 없는 30명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질문> 10. 토론 대회 참여는 어떠했나요?

<응답>

번호	선택 사항	응답자 수
①	매우 즐거움	9
②	즐거움	17
③	보통	3
④	따분함	1
⑤	이주 따분함	0

<질문> 10-1 토론 과정이 즐겁거나, 따분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약간 힘들었다./ 예상치 못한 질문 때문에 애먹었다./실수도 많았고 결과도 안 좋았지만 참여 그 자체가 흥미로움/ 똑같은 논리에 반복되는 이야기/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즐겁다./ 새로운 나와 다른 생각들을 알 수 있어 즐겁다./토론자들의 표정, 분위기가 좋음/ 그냥 느낌이 즐겁다./ 평소 토론을 좋아해서/여러 의견을 듣고 배경지식을 넓힐 수 있다./ 정말 유익하고 즐거웠고 토론하는 동안에도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여러 친구들과 가치 있는 의견을

7) 43명의 학생들은 본선 1차 혹은 2차에서 탈락한 학생들로 대회 이후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설문에 응해주었다. 휴식 시간은 다음 라운드를 위한 준비 시간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다음 토론을 준비해야 하는 토론 최종 우승자들의 설문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이와 같은 조치는 토론 효능감이 토론의 승패와는 무관하게 보고될 수 있음을 밝히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설문에 응한 토론자들은 모두 토론대회에서 우승과 패배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공유할 수 있어 좋았다./ 평소 하고 싶은 말을 내뱉을 수 있었다./ 배움의 한 과정/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비판받는 것 또한 즐기므로/ 타인과의 대화의 즐거움

사전 조사의 결과 30명중 26명이 토론 과정이 ‘매우 즐겁거나 즐겁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토론 과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고 ‘따분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서울 고등학생 토론 대회 운영의 절차상 본선에서 똑같은 주제로 여러 번의 토론을 해야 하는 상황의 불합리성을 이유로 들었다. 그 외의 학생들은 긍정적 토론 효능감의 양상을 보였는데 그 이유로는 표현 욕구의 충족, 논증 과정에 대한 흥미, 상대와의 의사소통의 즐거움, 삶의 기회 등을 들고 있었다.

사전 조사의 결과로 볼 때 학생들이 ‘토론 대회 참여’를 즐기는 경향이 아주 뚜렷했다. 다만, 즐겁다거나 좋았다는 반응의 원인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할 필요가 있어서 본 연구에 있어서는 대회 과정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과 이의 극복 과정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한 소감문과 토론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의 심층 인터뷰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다.

2. 토론 대회 참가자들의 토론 소감문과 심층 인터뷰

사전 연구를 통해 얻은 토론 효능감의 유형과 효능감이 발생하게 된 맥락을 보다 상세화하 위해 토론 대회에 참여한 토론 참가자들의 자기 경험 기술지가 필요했다. 이에 2008, 2009년 안산 지역의 고등학교 2곳에서 실시한 토론 캠프와 방과 후 토론 수업⁸⁾에 참여 학생들로부터 토론 경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기술한 토론 소감문을 제출받았다. 또

8) 안산 지역 두 곳의 학교와 부산 지역 한 곳의 학교는 토론 학습에 대한 열기가 매우 뜨거운 학교로 통합교과적인 차원에서 방과후 토론 수업과 방학을 이용한 토론 캠프, 교내 토론 대회를 자발적으로 주취하고 있었다. 토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토론 대회 참여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전국적인 대회에 참여하여 입상한 학생들도 다수 있었다.

한 토론 대회 경험이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삼은 질적 자료를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질적 자료 목록

자료 유형	자료 설명	연구 대상	조사기간
설문	서울시 고등학생 본선 토론대회에 참여한 21개 고등학교 학생 대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함.	30명 (1회 서울시 고등학생 토론대회 참가자)	2008. 10. 25
경험기술지 (토론 소감문)	토론 대회 참가 직후 소감문을 작성하게 하여 제출 받음.	35명 (안산지역 2개 고등학교) 39명 (부산지역 1개 고등학교)	2009 ~ 2010
심층인터뷰	고등학교 재학중인 1~3학년까지 토론 대회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5분 가량 인터뷰 진행함.	15명 (안산지역 1개 고등학교)	2010. 02. 11

3. 자료 분석

질적 연구 자료 분석을 위해 NVivo 8⁹⁾을 활용하였다. NVivo 8은 컴퓨터를 응용한 질적 자료 분석 체계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질적 연구가 객관화된 도구를 사용하지 못해 신뢰도나 타당도가 떨어진다는 비판과 질적 연구 과정이 연구자의 직관에 의해 왜곡될 수도 있으며 방대한 자료 정리 과정이 신비에 싸여 정확하지 못한 연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염려에서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이 ‘연구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선행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자신의 연구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를 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

9) NVivo 8은 QSR에서 출시하여 현재 전 세계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활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한글판이 출시되지 않아 연구 자료의 글자가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국어교육 분야 김은성(2007)에서 Nvivo7을 활용하여 문법학습 부진 요인에 대한 연구를 한 바 있다.

고 현장에서 원 자료를 중심으로 반복되는 주제를 발견하는 방향(박종원, 2009)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론 효능감의 유형과 양상을 다각도에서 발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론 소감문과 심층 인터뷰의 전사 자료를 원 자료로 하여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토론 효능감의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최대한 개방하여 살펴 본 후, 1차, 2차, 3차에 걸친 코딩 정확화 작업을 통해 토론 효능감의 유형과 범주를 분류하고 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분석하려 한다.

4. 토론 효능감 범주화 작업

토론 효능감과 관련이 있는 주제별로 코딩을 해서 가능한 토론 효능감의 유형을 모두 펼쳐 보는 1차 코딩 단계에서 52개의 범주가 나왔다. 코딩 단계에서 긍정적 효능감과 부정적 효능감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기술하였는데 그 이유는 긍정적 효능감이 우월하게 많았기 때문이다. 이어서 관련이 있는 소주제별로 2차 코딩을 실시하였는데 1차 코딩에서 나온 범주를 바탕으로 통합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합하면서 범주명을 수정하기도 하고 유지하기도 해서 13개의 범주로 자료들을 묶을 수 있었다.¹⁰⁾ 2차 코딩의 결과는 정서, 인지, 사회적 측면의 효용으로 나누어 토론 효능감을 최종적으로 분류하였다. 코딩 단계별 범주를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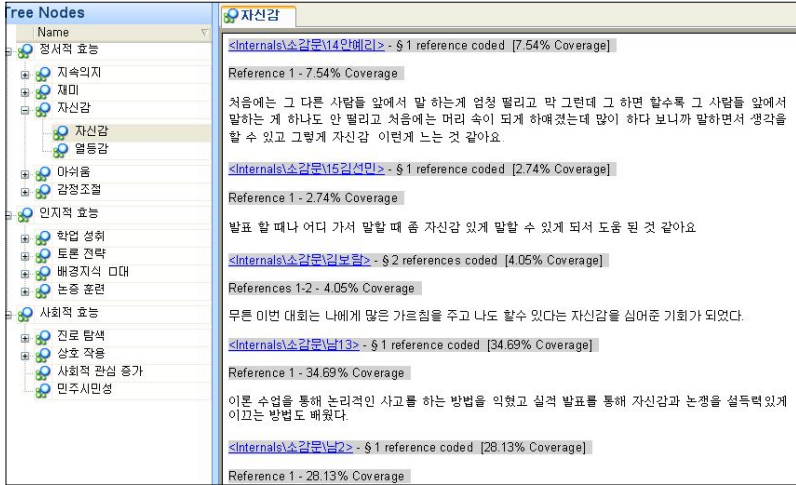
10) 52개의 범주를 만드는 데는 개방적인 방법(free node)을 사용하였으며 이후 이들을 통합하고 재범주화하는 과정에서 위계적인 방법(tree node)을 활용하였다. 코딩한 범주의 이름은 작업 과정을 통해 수차례 변경되었지만 NVivo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수정할 수 있었다.

〈표 2〉 코딩 단계별 범주화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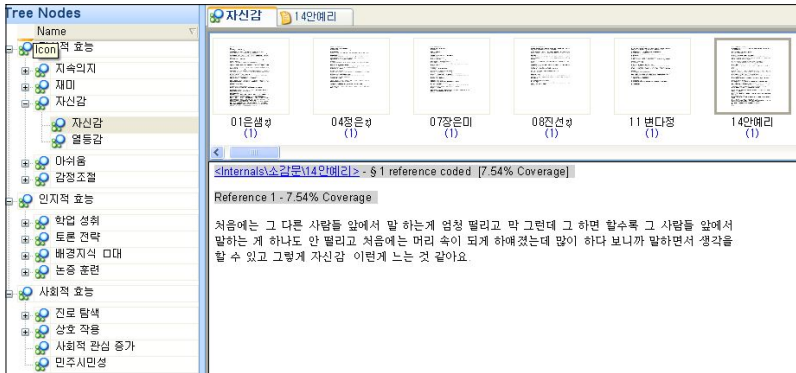
횟수	범주 (노드)
1차 코딩	감정 싸움, 과제 부담감, 균형있는 시각, 권유 의지, 공격적 성향, 관용, 겸손, 글쓰기 능력, 떨림, 무서움, 민주 시민 의식, 메모 능력, 배경 지식 확대, 보람, 비판적 사고력, 사회적 관심 증가, 상대 의견 듣기, 상대측 입장에서 생각, 성숙, 성격 변화, 수면 부족, 수업 지장, 순발력, 시간 촉박, 심적 부담감, 아쉬움, 어려움, 역할 인식, 예측능력, 요점 찾기, 우울감, 열등감, 외우기 부담, 윤리 의식, 자기 개발, 자료 검색 능력, 자신감, 잠재력 발견, 재미, 주제 이해 심화, 주장 강화, 준비 부담감, 지속 의지, 진로 탐색, 집단 소속감, 집중력, 창의성, 토론 방식 이해, 토론 전략, 판정 승복, 학업 성적 향상, 후련함 (52개)
2차 코딩	감정 조절, 논증 훈련, 민주 시민성 함양, 배경지식 확대, 사회적 관심 증가, 협력적·경쟁적 상호 작용, 자신감, 아쉬움, 재미, 지속의지, 진로 탐색, 토론 전략, 학업 성취 (13개)
3차 코딩	정서적 효능, 인지적 효능, 사회적 효능 (3개)

‘NVivo 8’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범주를 통합하는 과정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 <그림 1>을 보면 왼쪽 창에 최종적으로 범주화한 정서, 인지, 사회적 효능을 찾아 볼 수 있고 각 하위 영역에 4~5개씩의 하위 범주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 역시 <+>부분을 클릭하여 해당 범주를 펼쳐보면 보다 하위 영역의 범주들로 세분되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그 범주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서적 효용’의 ‘자신감’의 항목을 검색하면 코딩한 원 자료의 목록과 코딩한 내용이 보이면서 어떠한 맥락에서 코딩된 자료인지를 검토할 수 있다. 또한 <그림 2>와 같이 코딩한 내용 이외의 원 자료도 바로 검색할 수 있어서 범주의 항목을 통합·조정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림 1> NVivo 8 tree node 작업 화면



<그림 2> NVivo 8 코딩 원자료 불러오기 작업 화면

IV. 결과 분석 및 논의

1. 정서적 효능감

대분류	소분류	코딩 빈도	비율
정서적 효능감	자신감 (자신감/열등감)	72	37.9
	재미	41	21.6
	아쉬움	36	18.9
	지속 의지	24	12.7
	감정 조절	17	8.9
합 계		190	100

정서적 측면에서 가장 부각되고 있는 효능감은 ‘자신감’이었다. 이 중에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기술한 학생은 70명이었다. 이외에 부정적인 효능감으로 ‘열등감’을 느꼈다고 기술한 학생은 2명이었다. 자신감이 형성되는 구체적인 맥락으로는 ‘상대방을 잘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 ‘처음보다 나아진 느낌’, ‘실수가 줄어든’, ‘내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주장하는 무엇인가를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살펴볼 수 있었다.

토론을 시작하면서 부딪친 첫 번째 난관은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이었다. 평소에 친구들과는 자신감 있게 또, 크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토론대회에서는 달랐다. 처음에는 판정관인 선생님들 앞에서, 그리고 토론을 보러온 친구들 앞에서, 결승전에서는 전교생들이 보는 앞에서 토론을 하려니까 굉장히 많은 자신감과 노력이 필요했다. 처음에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내 차례에 나가서 할 말을 까먹고, 버벅거리게 되고 너무 당황해서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는데 대회가 진행 될수록 말하는 태도도 분명해지고 내 의사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어, 저절로 자신감이 향상되는 느낌을 받았다. 토론대회를 시작하면서,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느껴 그것이 나

의 단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토론이 끝나갈 무렵에는 자신감 있는 태도가 나의 장점이 되었다. <소감문 11 중에서>

<소감문 11>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대회식 토론’이라는 상황 자체가 고도의 말하기 불안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토론 대회의 지속적 경험이 자신감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고 밝히고 있었다.

또한 ‘재미’를 느끼는 학생 역시 41명으로 비율이 높았다. 흥미로운 점은 ‘재미와 어려움’¹¹⁾을 동시에 느끼는 학생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학생이 ‘어렵지만 재미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지만 재미있다고 생각하는지 맥락을 살펴보자.

자료를 찾고 알아가는 기쁨과 재미도 있었지만 그만큼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기도 했다. <소감문 9 중에서>

여러 번 교차질문을 해보니까 조금씩 교차질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이 왔고, 또 재미도 느꼈다. (중략) 이번에도 역시 반박이 어려웠다. 어떤 것을 반박해야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말하지 못해 더 머리가 아팠던 것 같다. 그리고 금요일 날 모의 토론할 때 반박을 하는데 선생님이 너무 알지도 않고 깊지도 않은 반박이었다고 하셨다. 칭찬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뿌듯했다. <소감문 12 중에서>

16강의 토론이 끝나고 바로 심사위원장 분이 심사평을 해주셨다. 결과는 3:0 승이었다. 그 땀 정말 쾌감을 느꼈다. 토론은 할수록 매력적이어서 그 매력에서 빠져 나올 수 없다. <소감문 13 중에서>

교차질문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가장 어렵고 또 재밌었다. (중략) 상대 발언자가 예상치도 못한 질문을 했을 때에는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내

11) ‘어려움’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어느 범주에 넣을지 고민하다가 정서가 아닌 인지적 효능 부분으로 코딩하였다. 이유는 어려움의 원인이 주로 인지적 차원에서 발현되었기 때문이다. 어려움의 원인으로는 ‘준비에 대한 부담감’, ‘토론자 역할 부담’, ‘반론 구성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

가 상대팀을 당황케 하는 질문을 처음하게 되자, 오히려 그것도 재미로 다가왔다. <소감문 8 중에서>

처음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글을 쓰는 것도 뭘 써야 될지도 몰라서 너무 어려웠다. 근데 토론을 시작하고 나서는 보는 건 재밌었지만 내가 직접 할 때는 자료 찾기도 어려웠고 반론하기도 너무 어려웠다. 토론은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소감문 27 중에서>

학생들이 ‘재미’, ‘즐거움’, ‘매력’, ‘흥미’, ‘쾌감’, ‘중독’¹²⁾을 느끼는 원인은 주로 <소감문 9, 12>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즐거움과 <소감문 12>처럼 대회식 토론에서 맛볼 수 있는 승리의 기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재미’의 효용은 토론을 하는 사람뿐 아니라 <소감문 27>에서 보이는 것처럼 토론을 참관하는 학생의 반응으로도 나타난다. 특히 <소감문 8>에서 보이는 것처럼 순발력을 요구하는 질의와 응답시간의 날카로운 공방이 학생들의 흥미를 끄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감문 9, 12>의 육체적인 피로, 토론 전략 활용의 어려움, <소감문 27>에서 보이는 토론 과정 자체의 부담과 어려움은 토론의 단계마다 중첩되면서 학생들에게 더욱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아쉬움’을 느끼는 학생들은 36명이었다. 주로 자신이 준비한 것을 제대로 발표하지 못하거나 당황해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는 학생이 많았으며 이를 계기로 자신의 토론 활동을 비판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었다. 하지만 ‘아쉬움’의 감정이 부정적인 효능감으로 판단되지는 않았다. 주로 긍정적인 자기반성 및 점검의 기능을 하고 있었으며 ‘아쉬움’의 감정이 형성되는 맥락이 주로 토론 상대와의 비교를 통한 건설적인 자기 이미지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토론대회는 나에게 아쉬움이 남는다. (중략) 후배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좁은 사고를 가지고,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12) 학생들이 소감문에 쓴 토론 활동에 대한 감정 용어들을 정리한 것이다.

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또 토론대회에 참가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발표하는 것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어떤 점을 개선해 나가야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소감문 74 중에서>

<소감문 74>에서 보이듯이 ‘아쉬움’이라는 용어 선택은 맥락상 ‘겸손’의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다’는 의지나 기대를 포함하는 것으로 긍정적 효능감으로 분류될 수 있다.¹³⁾

토론 대회의 긍정적 효능감은 토론 대회에 대한 지속 의지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권유 의지로 강화되고 있었다. 토론 대회에 다시 참여하고 싶거나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반응한 학생들은 24명이었다.

올해 2학년인데 올해부터가 아닌 작년부터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감문 25 발췌>

제가 다른 고등학교를 갔으면 이런 토론을 못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토론이 언젠가는 귀찮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게 많아져서 학생들이 토론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10 발췌>

지금은 2학년때 결성한 토론모임 “○○”에서 토론대회 방식을 적용해 모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소감문 27 발췌>

이번 기회를 경험으로 내년에도 참여하여 반드시 우승을 손에 쥘 것이다. <소감문 21 발췌>

고등학교 2학년 때 토론을 처음 접한 학생은 <소감문 25>처럼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운 반응을 보였고, 토론 경험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유하거나 주체적으로 토론 대회 이후에 개인적인 토론 모임을 만들어 토론 활동을 지속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경쟁적 속성이 강한 대회식 토론은 학생들의 의견을 찬성과 반대로

13) 물론 ‘시간에 쫓겨’, ‘판정관의 이해할 수 없는 판정’ 등 부정적 아쉬움의 요인도 있었다.

대립시켜 상대의 감정을 자극할 것이라 것이 연구자의 예상이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소감문에서는 감정 조절에 대한 효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서 심층 인터뷰에서 개별적 질문의 항목에 추가 했다. 의외로 학생들의 응답은 감정을 자극한다기보다는 토론을 통해 감정 조절 능력을 배울 수 있었다는 반응이 있어 흥미로웠다. 감정 조절에 대해 언급한 학생은 17명이었으며 ‘더욱 침착해진다.’, ‘처음에는 흥분하지만 토론 대회에서 자제하게 된다.’, ‘대회가 끝나고 상대팀이 칭찬을 해 줘서 가장 뿌듯했다.’와 같은 반응들이 있었다.

일단은 토론하는 그 상황에서는 일단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다시 내가 감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분 나쁘고 화는 것 없는 것 같아요 <인터뷰 2 발췌>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먼저 설득시킬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감정적으로 좀 하게 되는데 안 될려고 말도 느리고 하고 <인터뷰 3 발췌>

흥분해요. 예상했던 반론 나오면요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반론이 나오면 당황하기도해요.. 하지만 토론 할수록 감정 조절하는 게 많이 늘어요 <인터뷰 10 발췌>

<인터뷰2, 3, 10>의 자료를 통해 학생들은 토론 중에 감정의 변화를 겪지만 토론 상황이라는 형식적 특성을 의식해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말을 천천히 하거나 화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의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감정 조절 능력은 토론의 횟수를 거듭할수록 신장된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2. 인지적 효능감

대분류	소분류	코딩 빈도	비율
인지적 효능감	논증 훈련	57	37.9
	토론 전략	32	21.1
	배경지식 확대	25	16.5
	준비 부담감	25	16.5
	학업 성취	12	8
합계		151	100

토론 대회 경험이 ‘논증 훈련’에 도움이 된다고 기술한 학생들은 57명으로 가장 많았다. 논증 훈련의 범주는 주로 사고력 신장과 관련된 것으로 ‘비판적 사고력’ 26명, ‘창의적 사고력’ 11명,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력을 동시에 언급한 학생’ 10명이었다.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계기’, ‘생각하지 못한 것을 제시해야 하는 능력’, ‘창의적이고 참신한 표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 등으로 소감의 내용을 작성했다.

그냥 왜 그런지 이유 같은 거 생각할 때 외우지 않고 생각하는 습관이 든 것 같아요 <인터뷰 11 발췌>

토론 대회 이후로 토론과는 담을 쌓고 살았던 것에 비해 내 머리는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변해 있었다. 작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내가 정신적으로 자라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부분도 이 부분이었다. <소감문 42 발췌>

꼭 평면적 사고만을 하던 내가 생각을 접고 돌리고 하며 입체적으로 만들어 어 그 밑면과 윗면까지 모두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았다. <소감문 8 발췌>

<인터뷰 11>의 학생처럼 외우지 않고 생각하는 습관을 형성한 경우도 있었지만 토론 대회에서 입론을 맡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외우기에 대한 부담’을 언급한 경우도 많았다.¹⁴⁾ 또한 <소감문 42>와 같이 논증 능

력의 성장을 정신적, 인격적 성장으로 연결시켜 소감문을 작성한 경우도 있었다. <소감문 8>의 학생은 비유적 표현으로 토론을 통한 입체적 사고를 강조하였다. 하지만 사고력에 대한 언급은 많이 드러나는 반면 어떻게 사고력이 형성되거나 신장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자세한 기술이 소감문에 반영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수집할 때 인터뷰 항목에서 심층 면접을 실시했다.

질문 : 토론 대회를 통해 사고가 어떻게 신장된다고 느끼나요?

대답 : 음, 우선 토론은 팀으로 하잖아요.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가 모자라는 사고의 부분을 채워줄 수 있어요. 우리 팀 네 명의 아이들이 참 달라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도 관점이 여럿이다 보니 처음 팀원을 짜기 시작할 때는 그 점이 걱정스럽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해 가정의 상황을 세우며 대처할 수 있었고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불러와서 무척 놀랐고 기뻐요. <인터뷰 12 발췌>¹⁵⁾

질문 : 토론 대회를 통해 사고가 어떻게 신장 된다고 느끼나요?

대답 : 토론 대회를 할수록 성장하는 느낌이랄까. 토론을 통해 짧은 시간에 사고력이나 논리력이 많이 길러진 것 같아요. 대회 이후로 자료를 볼 때도 그냥 안보고 비판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인터뷰 3 발췌>

<인터뷰 12, 3>의 자료를 통해 볼 때 대회에서 토론할 때 보다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논증 훈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은 하나의 논제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우쳐가는 과정을 사고력의 신장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같이 토론하게 되는 학생들의 다양한 시각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토론 대회 이후에도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되거나, 자료를 비판적으

-
- 14) ‘외우기 부담’을 언급한 학생들의 소감은 인지적 측면의 ‘토론 준비 부담감’의 하위 항목으로 묶어서 코딩하였다.
- 15) <인터뷰 12>의 학생은 토론 지도 교사가 적극 추천한 학생으로 지도교사에 의하면 ‘토론 대회에서 발견한 보물’이라고 했다. 실제로 경민대학에서 주최하는 토론대회에서 입상하기도 한 학생이다.

로 검토할 수 있게 되는 훈련을 지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인식은 다음과 같이 <소감문 43>에도 잘 드러나 있다.

논박에서 우리만의 주장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다. 상대방에서 어떤 반박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주장을 만들기 위해, 단어 하나, 전제 하나에도 신경을 써서 배치했다. 일단 주장이 여러 개 나오면, 우리는 반대편 입장이 되어서 반박을 해보고 또 다시 우리의 반박을 해보는 식으로 완전한 주장을 만들어 갔다. 하나의 주장에도 이런 대화들이 여러 번 오갔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로 즐거웠다. 개중에 글로 다 써 놓지 못하는 것들은 질문이 들어오거나 반박을 당했을 때 또 다시 반박할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예선전의 주장 3개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해도 ‘완벽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였다. <소감문 43 발췌>

소감문을 통해 볼 때, 학생들은 주장을 세우고 예상 반론을 만들고 이를 재반박해가는 과정을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익혀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논증 훈련은 토론 대회에 임해서 토론을 하는 중보다는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료와의 협력적 사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소감문 8>에서 언급한 ‘생각을 접고 돌리고 하며 입체적으로 만들어 그 밑면과 윗면까지 모두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반론에 대한 재반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사고’나 ‘창의적 사고’가 형성된다고 느끼는 것도 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논증 훈련’과 ‘토론 전략’이 엄밀하게 분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고에서는 사고력 관련 효능감은 ‘논증 훈련’으로 분류하고 ‘순발력있는 질의·응답’, ‘토론 형식 이해’, ‘토론자의 역할 인식’, ‘경청’ 등의 요소는 토론 활동을 하면서 발휘할 수 있는 전략 관련 효능감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인 하위 항목은 ‘순발력 있는 질의·응답’ 16명, ‘토론 형식 이해’ 2명, ‘토론자의 역할 인식’ 6명, ‘경청’ 8명이었으며, 학생들은 ‘순발력’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입기응변 능력 같은 것을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소감문 23 중에서>

앞에 서서 상대팀을 마주하며 논리적으로 우리 측의 주장을 말할 때의 긴장감, 상대의 오류를 찾아 질문을 던지고 예상치 못한 것을 짧은 시간 동안 바로바로 대답을 하고 질문을 해야 하는 급박한 분위기가 좋았다. <소감문 45 중에서>

제가 교차질문담당이었어요. 제가 질문하고 옆에 있는 ○○가 질문을 받는 경우였는데 그것도 연습하고 학교에서 친구들 다 모아서 이렇게 연습하니까 질문하는 기술이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인터뷰 11 중에서>

그 남학생은 정말이지 순발력이 뛰어났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토론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소감문 7 중에서>

‘순발력’의 개념을 <소감문 23>처럼 ‘임기응변 능력’이라고 인식하는 수준에서부터 <소감문 45>처럼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논박’으로 정의하는 학생까지 다양했다. 또한 <인터뷰 11>에서 보듯이 ‘순발력’도 토론 전 연습에 의해서 키워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소감문 7>에서처럼 상대방 토론자의 순발력을 토론의 중요한 능력으로 인정하며 평가하고 있는 경향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토론 대회 경험을 통해 토론의 유형, 절차, 토론자의 역할을 알게 되었다고 언급한 학생들의 소감은 다음과 같다.

색달랐다. 토론이라는 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는지 몰랐다. 토론이라는 게 그냥 사람들끼리 논쟁만 하는 줄 알고 있었지만 토론에도 형식이 있고 구체적이게 해야 한다고 느꼈다. <소감문 21 중에서>

나는 여기서 반론 2를 맡았는데, 이 역할은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다. 내가 예측한 반론은 크게 3가지였는데 상대방이 반론한 2가지 모두 나의 예측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아, 이거다.’라는 느낌이 오며 재반박을 할 수 있어 너무 뿌듯했다. <소감문 50 중에서>

학생들은 토론 전에 토론 유형과 절차에 대한 강의를 들은 경우가 대

부분이었으나 토론을 막상 시작하고 나서 <소감문 21>과 같이 토론의 전체 진행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토론에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소감문 50>과 마찬가지로 임무를 완수했을 때 성취감을 맛볼 수 있었다고 했다.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학생이 많았는데 <소감문 61>에 서처럼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인식한 학생뿐 아니라 <인터뷰 6>처럼 토론에서 이기기 위한 적극적 전략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¹⁶⁾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 기억에 남는다. 토론은 말로 싸우는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한다면 일방적인 토론이 되기 때문이다. <소감문 61 중에서>

상대측이 우리 측에 유리한 발언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때 그걸 빠르게 캐치해서 공격하려면 상대측 말을 잘 들어야 하잖아요. <인터뷰 6 중에서>

토론을 통한 인지적 효능감으로 ‘배경지식의 확대’를 언급한 학생은 25명이었다. 대부분 토론을 통해 ‘주제에 대한 이해 심화’가 이루어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균형적 사고’와 ‘통합적 이해’로 이어졌다고 밝히고 있었다.

각 토론 할 때마다 그 정해지는 주제 논제가 있잖아요. 그 논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고 그 조사 하는 과정에서 더 다른 자료도 찾을 수 있고 정보도 얻을 수 있어서 많이 배우는 점이 많아요. <인터뷰 22 중에서>

16) 대부분의 학생들이 토론 전략에 대해 하나씩 언급하고 있는데 반해서 다음 학생은 전략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눈에 띈다. 이 학생은 안산 지역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토론 수업 60여 시간을 이수했을 뿐 아니라 토론 대회에 입상경력이 있는 학생이기도 하다. ‘토론대회 실전에 나섰을 때는 무엇보다 정리한 내용을 알맞을 때에 재각재각 쓸 수 있는 순발력과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논점을 잘 파악해서 집어내서 허점을 찌를 수 있는 오류를 발견하고 역질문으로 상대의 논점을 집어주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팀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야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번 대회에서 이런 점들을 좀 더 보강해야겠다고 느꼈다.’ <소감문 62 중에서>

자료 조사는 인터넷으로 먼저 하고 그 논제 관련된 도서 찾아서 도서관 가서 책 찾아서 보고 그래요. <인터뷰 8 중에서>

한 주제에 대해 준비를 하며 토론은 말을 그럴싸하게 표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제에 연관되는 많은 배경지식이 필요하며 그 지식들을 정리하여 토론에 적용시킬 수 있게 가공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며 말모써 표현하는 것은 마지막 단계였다는 것을 알았다. <소감문 23 중에서>

또한 이과가 된 지금 토론을 통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아까 언급했던 진화론이란 과학 분야를 인문사회학에 접목시킴으로 이전에 ‘과학과 인문사회학은 별개이다’라는 생각을 없애고 편향되지 않게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소감문 11 중에서>

<인터뷰 12>에서 드러나듯이 토론 논제를 조사하고 알아가는 것을 배움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료를 조사하고 찾는 방법도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익히고 적용해가고 있었다(<인터뷰 8>). 또한 자료 조사의 중요성을 당위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소감문 23>처럼 토론 경험을 통해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우쳐가고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폭넓은 이해는 통합적 사고를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느끼고 있었다 <소감문 11>.

하지만 ‘자료 조사에 대한 부담감’ 역시 만만치 않게 언급되었다. 토론 준비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은 ‘수면 부족’ 18명, ‘수업 시간 줄음’ 6명, ‘건강상의 문제’ 1명으로 나타나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감문도 많았다.

토론 대회 준비하느라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다 보니 수업 시간에도 졸고 야자 시간에도 졸다가 혼이 나서 너무 억울한 적도 있었어요. 대회 한번 준비하려면 일주일 이상은 투자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대회 끝나면 시원 섭섭하고 그래요. <인터뷰 17중에서>

토론 주제의 반대측과 찬성측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 다 준비해야 되는 것이므로 준비 과정 또한 더욱 힘들고 2배의 노력이 필요했다. (중략) 토론이란 100분을 준비한다면 1분밖에 보여주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

다. <소감문 71중에서>

학생들마다 다르긴 했지만 토론 대회를 준비하는 데 3일~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학교 일정을 소화하면서 남은 시간을 활용하려니 자연스럽게 잠을 줄여가며 대회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감문 71>에서 보이듯이 찬,반 양측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자신의 역할에 따라 논증을 전개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한 것에 비하여 조금밖에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느끼고 있었다.

토론과 학업성취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토론이 논술에 도움이 되었다.’ 8명, ‘토론이 공부 방법에 도움을 주었다.’ 4명이 있었으며 ‘토론 대회로 성적이 떨어질까 봐 우려된다.’고 밝힌 학생도 1명 있었다.

토론대회 말고 같이 공부를 할 때 스터디 그룹 같은 것을 할 때 토론식으로 서로 얘기 하면서 하면 그냥 공부하는 것 보다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요.
<인터뷰 1 중에서>

토론 하면 요점 찾는 게 많이 늘어요. 많은 내용을 알아야 하니까 바쁠 때는 중요한 것만 읽고 요약해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인터뷰 7 중에서>

토론이 논술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는 학생도 많았지만 토론에서 익힌 방식이 공부의 방법으로 활용된다고 밝힌 학생들이 있었다. <인터뷰 1>에서 토론 준비 과정을 통해 비판적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찾는 방법이 공부의 방법으로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학생도 있었으며 <인터뷰 7>처럼 많은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긴 요약능력이 도움이 된다고 밝힌 학생도 있었다.¹⁷⁾

17) 토론을 통해 ‘메모하는 능력’이 개발되었다고 밝히는 학생도 있었다. 하지만 소감문의 맥락상 학업성취에 연결되는 측면이 적어서 이는 ‘토론 전략’의 ‘경청’의 분류에 포함시켜 논의를 진행하였다.

3. 사회적 효능감

대분류	소분류	코딩 빈도	비율
사회적 효능감	진로 탐색	16	23.6
	사회적 관심 증가	3	4.4
	민주시민성 함양	4	5.9
	협력적 상호작용	45	66.1
합계		68	100

사회적 측면에서의 효능은 학생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사회적인 관계에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증대된 것과 토론을 같이 한 학생들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대인관계가 개선된 점으로 크게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특징적인 점은 토론 대회를 통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된 학생이 연구자의 예상보다 많다는 것이다. 잠재력 발견은 자기 개발에 대한 의지로 강화되고 있는 경우도 많아 토론의 경험이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내가 설 자리가 없었다. 딱히 남들보다 잘한다고 할 만한 게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론 대회를 통해 나는 잠재력을 발견했고 아이들에게 강한 첫인상을 남겼다고 자부할 수 있다. <소감문 75 중에서>¹⁸⁾

좀 부끄럽지만 제 꿈이 대통령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그쪽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은 중학교 때부터 어렴풋하게 있었어요. 근데 대통령이나 법조인 쪽으로 엄마가 토론하는 거보시고 너는 말로 먹고사는 거 해야겠다 그러셔서 원래 그런 걸 좋아했어요. <인터뷰 15 중에서>

18) 소감문의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중등학교 때 각종 행사에 즐겁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학생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 자신의 재능을 보여줄 기회를 만나지 못해 매우 아쉬워하다 토론 대회 공지를 듣고 ‘매우 기다리고 기다렸던 기회’라고 좋아했다.

토론 대회 이후 형성된 자신감과 자부심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소감문 75>에서는 자신이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잘 드러나 있고 <인터뷰 15>에서도 역시 가족들의 인정과 자신감이 적성에 대한 탐색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반대로 토론을 통해 사회적인 이슈나 현상에 대하여 관심이 증가했다고 서술한 학생의 수는 예상보다 적었다. 이 점은 ‘민주시민성 함양’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작용했다. 토론의 효능으로 강조되는 민주주의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비교적 소수의 학생들만이 언급하고 있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청소년 사회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사상가들이랑 여러 사건을 주의깊게 보게 되었다. <소감문 42 중에서>

민주주의의 필요한 덕목을 익힐 수 있게 되는 기회였다. <소감문 45 중에서>

<소감문 42>는 토론 대회를 통해 접했던 논제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행동으로 실천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소감문 45>에서 ‘민주주의의 덕목’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반면에 토론 준비와 대회 경험을 통하여 동료 간의 혹은 선·후배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게 되고 대인 관계를 발전시키게 되었다는 소감은 압도적으로 많았다.

같은 반이라서 서로 안면은 있었지만 별로 친하지 않다고 느꼈던 친구들이랑 해서 그런지 웬지 불편했다. (중략) 대회 준비를 하는 시간이 많아져 대회가 끝난 다음에는 너무나도 친한 사이가 되어있었다. <소감문 23 중에서>

단순히 토론 대회 참가자로서의 대화가 아닌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추억을 나눈 사람들끼리의 관계라고 생각하니 정말 기뻐다. <소감문 75 중에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토론 대회를 준비했던 경험들이 학생들의 친밀한 대인관계 형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소감문 23, 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효능감의 범주를 유형화하여 제시하면 <표 3>¹⁹⁾과 같다.

<표 3> 토론 효능감 유형 분석

대분류	소분류		코딩 빈도		비율
정서적 효능감	자신감	자신감	70	72	17.7
		열등감	2		
	재미		41		10
	아쉬움	긍정적 기대감	32	36	8.8
		토론 진행(판정) 불승복	4		
	지속 의지		24		5.9
	감정 조절	침착한 감정 조절	15	17	4.2
공격적 성향 증가		2			
인지적 효능감	논증 훈련		57		14.0
	토론 전략		32		7.8
	배경지식 확대		25		6.1
	준비 부담감		25		6.1
	학업 성취	긍정적 기대감	11	12	2.9
		부정적 기대감	1		
사회적 효능감	진로 탐색		16		3.9
	사회적 관심 증가		3		0.7
	민주시민성 함양		4		0.9
	협력적 상호작용		45		11.0
합계			409		100

토론 대회 참여 경험을 통한 토론 효능감의 유형을 살펴 보면,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효능감 순으로 빈도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정서적인 효능감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학생들이 토론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토론 교육에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토론을 통해 자신감을 형성하게 되고 이로 인해 앞으로의 토론 활동을

19) 음영 표시한 것은 토론의 부정적 효능감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이다.

지속하고 싶다는 의지를 다지게 되는 태도 형성에도 미치는 효과가 크다. 다만,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토론 과정을 통해 상당수가 자신의 토론 활동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은 집약적인 토론 활동을 학생들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또한 이에 대한 교육이 부재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함께 학생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의 토론 교육의 과제로 제시될 수 있겠다. 또한 4명의 학생이 제기한 토론 판정에 대한 불만도 주의깊게 살펴야 할 대목이다. 필자가 관찰한 토론 대회에서도 판정 결과는 전체적인 인상 대한 간단한 소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정성껏 준비하고 열심히 토론한 것에 대해 허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 따라서 토론 판정시 전체적인 부분뿐 아니라 개인별, 토론 절차별로 분석적인 설명과 해설이 뒤 따라야 승패만을 위한 토론 대회가 아닌 교육적 차원에서 의미있는 토론 대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격적인 질문과 대답의 공방이 오고 갈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 토론 활동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는 효능감으로 침착한 감정 조절 능력을 들 수 있겠다. 물론 공격적 성향이 증가하는 것 같다고 응답한 경우(2명)도 있었지만 감정보다는 절차와 규칙에 따라 토론에 임하게 되어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15명)가 많은 것을 보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양 측의 참여한 대립 속에서도 감정으로 대응하기보다 평정을 유지하며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학생들의 의식을 살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토론 시에 어떠한 감정이 어떻게 조절되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 하리라 생각한다.

인지적 효능감으로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주로 비판적인 사고와 관련된 논증 훈련이 토론 활동을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입장을 장·단점을 상호 비교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반론과 예상 반론을 구성해 보는 과정인 토론은 학생들에게 활발한 논증 훈련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토론 활동을 통해 배경지식이 확대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 수 만큼이나 준비 부담감을 호소

하는 학생이 많다는 것은 토론 대회를 개최할 때 주최측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보통 토론 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 있게 주어지기 보다는 일주일 전에 각급 학교를 통해 통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은 짧은 시간 안에 양 측의 주장과 근거를 모두 조사해야 하는 부담을 느끼게 되고 심지어는 체력적인 문제를 겪는다고 응답한 학생도 생기게 된다. 따라서 토론 대회 홍보나 준비에 있어서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토론 대회 주최측에서 논제와 관련된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여 자료의 범위 안에서만 토론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토론 대회의 목적이 정보 수집 능력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선정 배열하여 자신의 주장을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논증 과정에 있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토론 대회 준비 방법도 유효하리라 생각한다.

사회적 효능감으로는 토론 구성원 간의 협력적 상호작용과 친목 도모를 가장 큰 성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토론 활동을 통한 집단 효능감으로 볼 수 있는데 토론 활동을 통해 경쟁적인 상호 작용을 하기보다 집단 내의 협력적 상호 작용을 통해 동료간의 발전적 성장을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토론 경험을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대하여 진로를 탐색하거나, 민주 시민성 함양,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가는 것 또한 토론을 통한 집단 효능감의 측면에서 보다 더 연구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V. 결론

토론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한 기대는 현재 활발하게 조직되고 있는 크고 작은 토론대회를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토론의 효능감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제1회 서울시 고등학생 토론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조

사 성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긍정적인 토론 효능감의 대략적인 유형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74명의 토론 대회 소감문과 15명의 심층 인터뷰 자료를 질적 연구자료 분석 프로그램(NVivo 8)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토론 효능감의 구성 요인을 살펴보았다.

여러 차례에 걸친 코딩 결과 토론 효능감의 유형을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코딩 빈도는 정서적 효능감 190, 인지적 효능감 151, 사회적 효능감 68로 정서적 효능감에 대한 빈도가 가장 높았다. 학생들은 토론 경험을 통하여 ‘자신감’과 ‘재미’를 강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토론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지속의지’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토론 상황에 대한 인식을 통해 침착한 ‘감정 조절’의 중요성도 체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지적 효능감으로는 사고력의 신장과 관련되는 ‘논증 훈련’을 가장 많이 기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토론 전략’에 대한 개발과 토론 준비를 통해 얻게 되는 ‘배경지식의 확대’에서 보람을 찾고 있었다. 또한 토론을 준비하면서 개발한 공부 방법이 학업 성취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리라는 기대감도 높았다.

사회적 효능감의 빈도는 정서·인지적 효능감에 비하여 낮았으며 ‘민주시민성 함양’이나 ‘사회적 관심 증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다. 다만 토론 대회를 통한 ‘대인관계 개선’과 ‘진로 탐색’에 대한 효용은 많이 거론되었다.

토론 경험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 기술은 34회의 코딩 빈도를 보였는데 이는 전체 409회의 빈도에 비하면 아주 낮은 비율을 보였다. 주로 토론 준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수면 부족’과 ‘학업 방해에 대한 우려’가 주를 이루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토론 대회 경험이 학생들에게 주로 긍정적인 토론 효능감을 형성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말하기 불안 강도가 가장 높을 수 있는 토론 대회 참여 경험을 통하여 말하기 ‘자신감’이 형성된다고 반응한 비율이 가장 높은 점을 주목해 볼 수 있겠다. 이는 토론 경험이 많지 않은 우리의 교육 현실을 상기해 볼 때 학생들

이 정서적인 측면에서 높은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사회적 효능감의 빈도가 적은 것 또한 지적할 수 있는데, 이는 토론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국내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보다 분석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적 효능감을 끌어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토론의 진행 과정과 판정에 숨겨져 있는 철학적 이해와 주제를 둘러싼 토론자의 경험 확장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일깨우는 대목이기도 한다.

물론 이 연구의 자료는 학생들의 ‘소감문’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무엇인가 긍정적인 소감을 써야 한다는 학생들의 무의식적인 부담감으로 인해 긍정적 요소가 생각보다 많이 부각되어 있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²⁰⁾ 또한 소감문의 성별 차이나 토론 수준에 따른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토론 대회의 경험이 쌓여가면서 학생들의 토론 효능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토론 준비에 대한 강도 높은 부담감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로도를 완화해 줄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20) 소감문 작성의 부담이 가져올 수 있는 정보의 왜곡을 중화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최대한 중립적으로 실시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 본 논문은 2010. 9. 28. 투고되었으며, 2010. 11. 5. 심사가 시작되어 2010. 11. 29.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김영천·김진희(2008), 『질적연구방법론Ⅱ』, 아카데미프레스.
- 김은성(2007), “학습자들은 왜 문법학습을 꺼리는가?”, 『국어교육연구』 40집, 국어교육학회.
- 민병곤(2004), “논증 교육의 내용 연구”, 서울대 국어교육과 박사논문.
- 박영민·김승희(2007), “쓰기 효능감 및 성별 차이가 중학생의 쓰기 수행에 미치는 효과”, 『국어교육학연구』 제28집, 국어교육학회.
- 박종원(2009), 『현장 연구자를 위한 질적데이터의 과학적 관리와 분석-NVivo8 프로그램의 활용』, 형설출판사.
- 박종훈(1996), “메타커뮤니케이션의 분석을 통한 국어 교수·학습 내용 탐구”, 서울대 국어교육과 석사 논문.
- 유동엽(2004), “논쟁의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19집, 국어교육학회.
- 이선영(2010), “토론 교육을 위한 논제 선정에 대한 소고”, 『청람어문교육』 제41집, 청람어문교육학회.
- 이준웅·이상철(2007), “공공 화법과 토론 교육이 의사소통 능력, 토론 효능감, 시민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41권 1호, 144-171.
- 임칠성(2001), “교육토론의 모형과 의의”,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말하기 듣기 수업 방법론』, 박이정.
- 정재찬·이성영·서혁·박수자(1998), “국어과 토의·토론 학습의 수업모형 개발 연구(1)”, 『선청어문』 2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최복자(2006), “토론 교육의 수업 모형 개발 연구”, 전남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 논문.
- 최숙기(2008), “인문계 고등학교생의 읽기 효능감 구성 요인 연구”, 『청람어문교육』 제38집, 청람어문교육학회.
- Austin J. Freeley(1996), *Argumentation and debate(9th ed.)*,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21-30.
- David E. Williams, Brian R.Mcgee, and David S. Worth(2001), University student perceptions of the efficacy of debate participation : an empirical investigation, *Argumentation and advocacy* 37, 198-209.
- Jack E. Rogers(2002), Longitudinal outcome assessment for forensics, *Contemporary argumentation and debate*23, 1-27.
- Albert Bandura(1997), self-efficacy in changing societies, cambridge univ. press, 2-45.

<초록>

토론 대회 경험과 토론 효능감에 대한 연구 -고등학교 토론 대회 소감문 분석을 중심으로-

이선영

토론 대회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토론 효능감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제1회 서울시 고등학생 토론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조사 성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긍정적인 토론 효능감의 대략적인 유형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74명의 토론 대회 소감문과 15명의 심층 인터뷰 자료를 질적 연구자료 분석 프로그램(NVivo 8)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토론 효능감의 구성 요인을 살펴보았다.

여러 차례에 걸친 코딩 결과 토론 효능감의 유형을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코딩 빈도는 정서적 효능감, 인지적 효능감, 사회적 효능감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정서적 효능감으로 토론 경험을 통하여 ‘자신감’과 ‘재미’를 강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토론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지속의지’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토론 상황에 대한 인식을 통해 침착한 ‘감정 조절’의 중요성도 체험하는 것으로 보였다.

인지적 효능감으로는 사고력의 신장과 관련되는 ‘논증 훈련’을 가장 많이 기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토론 전략’에 대한 개발과 토론 준비를 통해 얻게 되는 ‘배경지식의 확대’에서 보람을 찾고 있었다. 또한 토론을 준비하면서 개발한 공부 방법이 학업 성취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리라는 기대감도 높았다.

사회적 효능감의 빈도는 정서·인지적 효능감에 비하여 낮았으며 ‘민주시민성 함양’이나 ‘사회적 관심 증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다. 다만 토론 대회를 통한 ‘대인관계 개선’과 ‘진로 탐색’에 대한 효용은 많이 거론되었다.

【핵심어】 토론 대회, 토론 효능감, 토론 교육

<Abstract>

Experiencing ‘Academic Debate League’ and Its Impact on Debate Efficacy

—Based on High School Students’ Debate Description Analysis—

Lee, Sun-young

Can experiencing debate league enhance the learner’s debate efficacy?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he categories of debate efficacy and to analyze how the debate efficacy forms in the specific contexts. This survey was conducted on 74 debate participation descriptions, and 15 in-depth interviews, and analyzed with NVivo 8 program (qualitative research method program).

Debate efficacy was coded as “emotional”, “cognitive”, “social” aspects. the number of coding frequency orders emotional, cognitive, social in a row. Emotional efficacy was embodied by ‘self-confidence’, ‘interest’, ‘the will to continue’, ‘controlling feelings’. Cognitive efficacy was specified as ‘argumentation training’, ‘debate strategy’, ‘expansion of background knowledge’, ‘school achievement’. Social efficacy was classified by ‘civility’, ‘interests of social issue’, ‘interpersonal relationship’, ‘finding potential power’. The positive debate efficacy codings were 375 and the negative ones were 34.

【Key words】 debate efficacy, academic debate league, debate education, qualitative research(NVivo 8)